

30대 그룹 동반성장임원협의회
간담회 자료(2014.2.12, 전경련)

동반성장으로 만드는 건강한 한국경제

2014. 2. 12.



■ ■ 목 차 ■ ■

I. 추진성과	1
II. 2014년 중점 추진계획	3
1.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	4
2.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리적 운영	7
3.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 전개	10
4. R&D 협력으로 미래 핵심기술 선점	13
5. 협력적 생태계 조성 및 성과공유 확산	17
6. 기업과 함께하는 활동 전개	20
[참고] 자율적 동반성장 실천 10대과제	22

I. 추진성과

① 동반성장 문화 확산

□ 동반성장 인식제고 노력으로 동반성장 여건을 개선

- 공공기관평가,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등으로 자발적 동반성장 추진체계 마련 및 동반성장 활동의 지속적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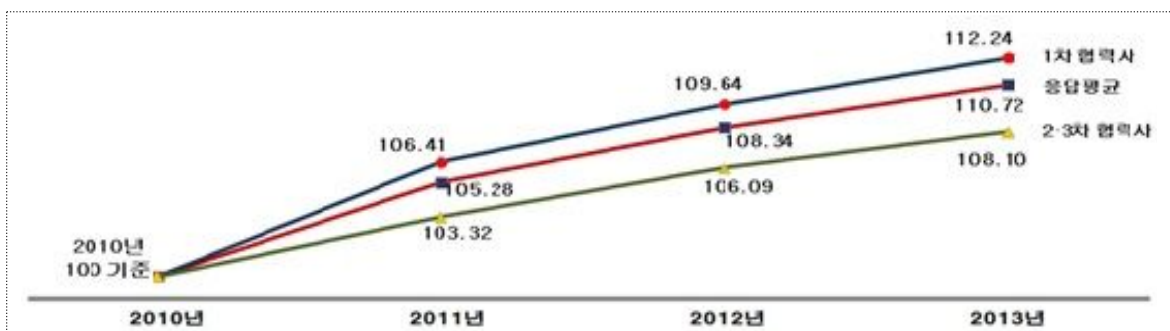
* 대기업 전담조직(개) : ('11) 84 → ('12) 101 → ('13) 157

* 지수평가 대기업(개) : ('11) 56 → ('12) 74 → ('13) 109

* 평가공공기관(개) : ('11) 56 → ('12) 59 → ('13) 59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장 체감도* 개선

* ('10) 100 → ('11) 106.4 → ('12) 109.6 → ('13) 112.2 (자료 : 중기중앙회, '13.10)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운영

□ 지난 3년간 100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제조 85개, 서비스 15개) 하였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서비스업의 지정 확대

- ('11) 제조업 → ('12) 생계형 서비스업 → ('13)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 ('14) 사업지원·지식기반형 서비스업

□ 적합업종 권고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는 사회적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자율적 준수 분위기 확산

- 지난 2년간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③ 동반성장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R&D 협력 증진

- 구매조건부 R&D지원 성과도출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 구매조건부 R&D지원과제 829개에서 총 2조2,582억원 지원성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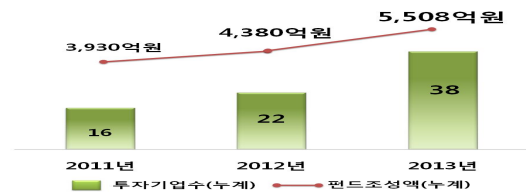
* 정부출연금(1,479억원) 대비 15.3배

- 대기업의 R&D 참여 및 펀드조성 지속 확대

* '13년(누적) 5,508억원(38개) 협력펀드 조성



< 구매조건부 R&D 지원 성과 >



< 대기업 R&D 협력펀드 조성 >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건수 지속 증가, 1만건 임박

* 기술보호(건수,누적) : ('11) 1,071 → ('12) 3,777 → ('13) 9,462

④ 성과공유와 국내외 판로지원

- '12. 4월부터 성과공유 도입 110개 기업, 3,041개 과제가 등록되어 대·중소기업간 협력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화확산

- 동반성장 투자재원 7,528억원 출연협약, 2,136억원을 실제 출연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해외판로 활동을 지원

- 산업혁신운동 3.0 재원관리 전담기관으로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 1,701억원 출연협약, 307억원 출연을 유도하여 2,3차 협력사 공정혁신 지원

- 대기업의 역량을 활용한 국내외 판로지원 기반 마련

- 구매상담회를 24회 개최(6,000건 상담), 대기업에 납품기회 제공
- 기존 전시회, 시개단 위주의 해외동반진출 지원에서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 해외지사에 중기 A/S센터 개소(STX), 해외사무소에 중소기업 상설 전시장 설치(한전), TV홈쇼핑 해외플랫폼 중기제품 방송 판매 등

II. 2014년 중점 추진계획

동반성장으로 만드는 건강한 한국경제

자율적 동반성장 실현



대·중소기업간 협력 확대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

- ① 동반성장 활동 참여기업 확대
- ② 민간 자율의 동반성장 추진
- ③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확산

R&D협력으로 미래 핵심기술 선점

- ① 시장지향형 R&D 협력 확대
- ② 중소기업 현장기술의 보호
- ③ 뿌리가 튼튼한 산업기반 조성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리적 운영

- ① 합리적인 적합업종 지정 및 재지정
- ② 적합업종의 경쟁력 제고

협력적 생태계 조성 및 성과공유 확산

- ① 동반성장 투자자원 확충 및 생산혁신
- ② 대기업 역량을 활용한 국내외 판로지원
- ③ 협력활동 성과의 공정한 배분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 전개

- ① 한국형 공유가치창출 모델 도입
- ② 협력적자원관리경영 모델개발
- ③ 업종별·지역별 커뮤니티 구축

기업과 함께하는 활동 전개

- ① 현장중심의 동반성장 활동 확대
- ② 동반성장 종합센터 설치
- ③ 동반성장 1조원 파트너 선정

① 동반성장 활동 참여기업 확대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금융·의료분야 등으로 단계적 확대

- 2·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 활동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

< 지수대상 기업 >



- 금융 및 의료산업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발전방안 마련
 - － 국내 주요은행(18개)과 거래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평가 추진
 - * 은행이 담보 위주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성장잠재력 등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멘텀 마련
 - － 의료기관(44개)과 의료기기·의약품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평가 추진
 - *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유망 新産業으로의 성장 토대 제공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을 실천하도록 유도

-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체감도조사 대상 중소기업을 대폭 확대
 - * ('13) 21개 기관, 협력기업 630개 ⇒ ('14) 40개 기관, 협력기업 1,200개
-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간 대기업들의 도입을 유도
- 동반성장 활동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10개)

② 민간 자율의 동반성장 추진

□ 동반성장 패러다임을 민간자율 동반성장으로 전환

- 경제단체 및 산업계에서 동반성장 패러다임을 민간자율로 채택하여 민간 스스로 실천하고 동반위는 적극 뒷받침

* 「민간자율 10대과제」 : 2013. 10월 동반성장 주간행사에서 전경련·중기중앙회·동반위 간 합의·공동 발표

10대과제

- | | |
|-------------------------|---------------------|
| ① 기업 자율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 | ② 실효성있는 동반성장 활동 지원 |
| ③ 공유가치창출 분야로 동반성장 영역 확대 | ④ 중기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 ⑤ 투명한 대금결제시스템 도입 | ⑥ 산업별 동반성장 모델 확산 |
| ⑦ 협력적 인력양성을 위한 동반활동 전개 | ⑧ 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정례화 |
| ⑨ 동반성장 애로사항의 상시적 해결 | ⑩ 동반성장 활동 기능 정비 |

- 「민간자율 10대과제」의 단계별 실천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 효율적 실천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축 및 체계적 관리로 협력체계 강화
 - * 실무협의회 : 전경련·중기중앙회·동반위·지수실무위원 등 10인 참여, 분기별 개최
 - － 25개 세부과제 중에서 '14년 15개 과제, 10개 과제는 계속과제로 추진
 - * 인프라 구축, 판로개척,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 등

□ 동반성장 문화의 전방위적 확산과 공유

- 동반성장의 건전한 문화가 대기업을 거쳐 2·3차 협력기업으로 전파·확산되도록 실천적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
 - * 중견기업 동반성장 모델 개발 및 지수 참여, 2·3차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및 결제조건 개선, 2·3차 수탁기업협의회 확대 및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등
- 물류, 건설 등 업종별 7대 분야의 동반성장 모델을 정착하여 산업내 동반성장 생태계를 활발하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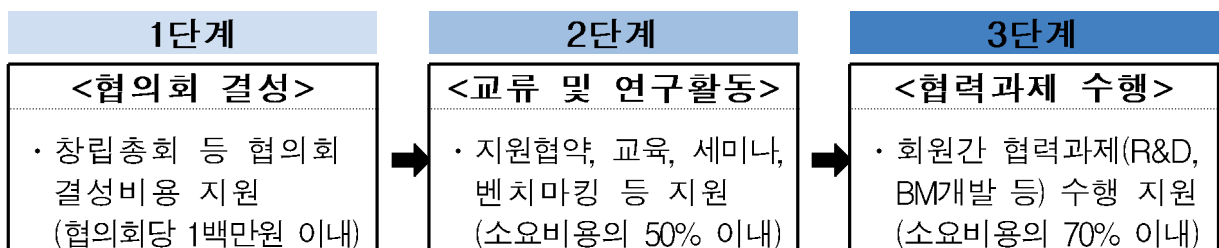


- 동반성장의 주요 정책을 조율하고, 민간 자원의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동반성장운영협의회」 운영
- －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단체장, 주요업종(7개)단체장, 정부 및 지원기관장, 학계·연구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

③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확산

□ 2·3 차 협력사 수탁기업협의회 결성 및 운영 지원 확대

- 대기업-1차협력사 위주의 동반성장 정책 및 활동을 전방위로 확산하기 위하여 2·3차 수탁기업협의회 결성을 확대
- * 수탁기업협의회(개) : ('13) 100 → ('14) 150 → ('15) 200
- － 수탁기업협의회 활동을 경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적극적 주체로 육성



- 수탁기업협의회 애로 해결을 위한 정기적 간담회 개최(4회)
- －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중기청이 참석하여 애로해결 및 협력 확대

□ 대기업 신용도를 활용한 2·3차 협력사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 2·3차 협력사의 어음할인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대기업 및 협력사 확대(대기업 : 50개, 협력사 : 2,000개)

* 대기업의 출연 없이 2·3차 협력사들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하여 저리의 조건으로 납품대금 회수를 지원하는 결제프로그램

* (사례) LS산전과 우리은행이 2·3차 협력사의 매출채권 대출 실행

□ 2·3차 협력사가 많은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참여 확대

-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 원가절감 공동사업에 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2·3차 협력사의 지원비중 확대

2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리적 운영

① 합리적인 적합업종 지정 및 재지정

□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적합업종 운영

-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폐지하여 지정 기간을 30일 단축(170일→140일)

* 접수·검토(10일) → 실태조사(60일) → 사전간담(10일) → 조정협의(40일), 실무위·동반위 의결(20일)

- 소규모·저수익·생계형 품목 등 적합업종 지정이 시급한 품목이 우선 지정되도록 탄력적 운영

* 적합업종 실무위에서 우선 추진 품목을 심의·선정

□ 사회적 이슈 및 갈등 업종에 대해서는 균형감 있게 조정

- 중대 사유로 기업이 요청할 경우 조기 해제, 기간 조정 등 재심의
-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품목에 대해서는 접수와 동시에 관련 TF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검토

* 이슈 품목 : 커피, 피자, 햄버거, 상품취급점, 식자재도매 등

□ 적합업종 기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

- 품목별 정보제공 및 업계의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 가능한 「적합업종 포털」 구축(5월)
- 적합업종 지정품목별로 대·중소기업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52회) 및 워크숍(12월) 개최
 - * 품목별 간담회 : 100개 품목 52개 중소기업 단체와 대기업 참여
 - ** 적합업종 워크숍 : 적합업종 참여 기업간 우수사례 및 정보 교류

□ 적합업종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 및 성과 분석

- 쟁점 이슈 및 업계의 입장이 첨예한 품목을 중심으로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 전문기관 연구분야
 - ① 지정 품목의 성과 분석 및 품목별 실태 연구
 - ②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연구
 - ③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분석 지표 개발 및 평가
 - ④ 외국계 기업 진출 실태와 적합업종 지정기준 마련
 - ⑤ 품목별 실태 및 성과분석을 통한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업계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 * 전문가 자문(4월), 개선방안 마련(5월), 공청회(6월), 동반위 보고(6월)

□ 14년에 기간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재지정

-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 지정 효과 등을 반영한 재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품목별로 적용(3월)
 - * 가이드라인 마련(3월)→재지정 접수(5월)→조정협의(6~11월)→의결(8~11월)
- 대·중소기업 당사자간 조정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지정 여부를 공표
 - * 재지정 품목(개,만료일) : 16(9.30) → 25(11.30) → 41(12.30)
- 신속한 재지정을 위해 동반위 내 재지정 TF 구성·운영(5~11월)

② 적합업종의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 및 대기업의 이행력 제고

-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경쟁력 강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구노력 계획서를 접수, 실천하도록 독려
 - * 지정시 30일내 설명회 개최(동반위), 60일 이내 자구노력 계획서 제출(중소기업)
- 「적합업종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및 위반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
 - * 이행점검단 구성 : 전경련, 중기중앙회, 동반위
- － 대기업이 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시 해당 대기업을 언론 등에 공표하고 지수 평가시 감점 강화('13년 2.5점 → '14년 4점)

□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 (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교육 실시 및 정책자금 연계 지원
 - * 업종별 특화교육과정을 개설 및 특화자금(4%대 금리) 신설 논의
- (자금)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2조원 규모의 적합업종 특별대출
- (컨설팅) 우리은행의 세제, 경영 등 심층 컨설팅 지원(연 30개사)
- (R&D)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 * '14년 50억 규모로 시범사업으로 실시 후 확대(개발기간 1년, 2억원 한도)

□ 적합업종 동반성장 협력 모델 구축

- 적합업종 대·중소기업간 우수 협력 사례의 확산
 - * 예시: 제빵교육 및 컨설팅(SPC-제과협회), 자동차수리교육(현대차-정비소), LED모듈 공동 구매(LG전자-LED 중소기업)
- 품목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우수 기업에는 정부 포상 연계
 - * 품목별 조사(2월), 사례집 발간(3월), 세미나 등 홍보(상시)

① 한국형 공유가치창출 모델 도입

최근 대통령님 주요말씀

① 상생의 기업 생태계 조성(전경련 준공식, '13.12.17)

-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경험을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창의적으로 융합해서,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 조성

②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노력 강조(경제계 신년사, '14.1.6)

- 경제 회복의 온기가 전국으로,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도 더욱 노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함께 창조경제를 구현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도약

□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 개발

○ 한국형 CSV 모델 연구 및 방향 제시(한국경영학회 공동, 6월)

－ 그간 CSR 중심의 사회적 기여활동을 CSV 중심으로 전환

-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이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성장한 만큼 사회에도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

- * CSV(Creating Shared Value) : 사회적 이슈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개념

○ 한국형 CSV 모델의 개발과 공유·확산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다자협력형* CSV모델을 발굴하여 이를 모델링하고 확산

- * CSV모델은 소비창출형, 자활견인형, 다자협력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다자협력형이 대표적 동반성장 모델임

□ 공유가치창출 모델의 확산

○ CSV활동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CSV한국위원회” 구성 및 활용

- * (위원회 구성) 한국경영학회와 공동으로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CSV 전문가로 구성
- * (위원회 기능) 진정성에 대한 사례 발굴·전파 및 CSV활동의 계량화 등
- 공유가치창출 확산을 위한 CSV-Society 활동 전개(한국경영학회 공동)
 - * CSV 교육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모델 사례 연구
 - * 국내외 CSV전문가 발표 및 토론 실시(연2회)
 - * CSV 도입기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10월), CSV 우수기업 포상(12월)
- 기업간 특허 및 기술장터 등을 활용한 공유가치 사업 지원
 - － 대기업이 보유한 유희설비, 기술·특허, 지식, 해외마켓 정보, 사무공간 등을 중소기업에게 대여·양도하는 CSV 전개
 - * 대여·양도 가능한 품목을 접수받아 알선하는 오픈마켓(공유자원거래소) 개설(9월)

② 협력적 자원관리 경영(Cooperative Partnership Governance) 모델개발

□ 협력적 자원관리 경영을 한국형 동반성장의 모델로 개발보급

- 외부자원(협력기업)의 역량을 최적화하는 생산 및 경영기법을 연구하여 대기업과 협력기업에 확산
 - － 협력적 자원관리 모델연구 TF를 한국경영학회와 공동 구성(3월)
 - * 기존 경영이 자본, 인력, 기술, 자재 등 요소 중심의 자원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나, 아웃소싱과 크라우드의 보편화에 따라 외부자원(협력기업)의 최적화가 기업 성장의 성패를 좌우(협치, 협업, governance 방식이 등장)
 - － 수직계열화, 수평협업, 아웃소싱, 집단지성의 활용, 해외발주 등 외부자원관리를 경영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
-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 발표 컨퍼런스 개최('14.11)
 - － 동반성장 3대 모델(공유가치창출(CSV), 협력적자원관리경영(CPG), 민간자율 실천)을 동반성장 주간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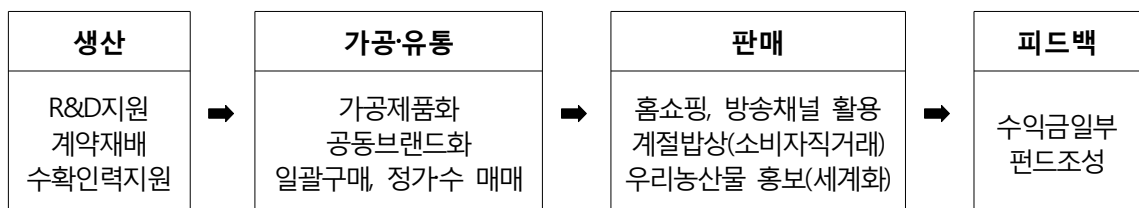
③ 업종별·지역별 커뮤니티 구축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동반성장 커뮤니티 구축

- 업종별 협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 이슈, 애로 등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 마련(분기별)
 - * 업종별 장애 파악 및 의견수렴(동반성장운영협의회) → 건의(동반위, 민관 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기옴부즈만)
- 해외 판로개척 지원, 현지활동 확대 등 해외 동반성장 탐방 프로그램 시범 운영('14.4)
 - * 방문국가 및 기업 선정('14.2) → 방문단(20여명) 구성·운영('14.4)
- 주요 업종별 현장 탐방을 통해 산업간 협력 도모 및 업종별 동반성장 활성화 추진(3회)
 - * 전기전자(6월, 삼성전자), 기계·조선분야(9월, 현대중), 유통(11월, SPC)

□ 업종 및 지역의 동반성장 니즈를 파악하여 동반성장 융합모델 발굴

- 대기업이 1차·2차·3차 협력사와 공동으로 지역과 융합하는 「동반성장 1·2·3 모델」 발굴·전파
 - * 대기업과 농촌의 동반성장 모델(CJ, SPC) → 사례 전파 및 확산(7대업종)



□ 대기업·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지역 동반성장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소재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납품, 생산, 구매, 인력채용, 사회공헌 등을 통해 지역과의 동반성장 도모
 - * 대지역(광역자치) 커뮤니티 구축 : 4개('13.하) → 8개 확대('14.하)
 - * 소지역(기초자치) 커뮤니티 구축 : 포스코(포항,광양), 한전·발전사(당진 등)

1 시장지향형 R&D 협력 확대

□ 구매조건부R&D 3.0* 실현으로 참여기업의 수익증대 실현

* 구매조건부 R&D 1.0(과제발굴형) → 2.0(사업화실현형) → 3.0(수익창출형)

- 성공과제 구매율 제고를 위한 판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 － 과제참여 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인증지원, 전시회 지원 프로그램 마련
 - － GP(Global Partnership)사업과 연계한 해외 판로 지원(KOTRA)
- 성공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연구회 심층지원(개) : ('13) 10 → ('14) 15
 - * 13년 : 국산화전략, IT융합, 바이오분야
 - － 과제화를 위한 연구회간 기술동향, 활동사항 등 네트워킹 지원

□ 공공부문 성공과제 수의계약 제도화*에 따른 과제발굴분야 확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4.1.1 시행

- Story-telling 형식의 성공사례 홍보로 과제 참여 유도
 - － ‘기바시15’ 영상물 제작으로 온·오프라인상에 성공과제 적극 홍보
 - * 기바시15 : 기술로 바꾸는 시간 15분
- 지역산업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R&D 수요발굴 추진
 - － 동반성장패어 旣 개최지 대상 사업 참여 유도(울산, 충남, 전북 등)
 - * 예) 울산(석유공사, 에관공), 충남(중부발전), 전북(전기안전공사)

□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중 의료, 문화콘텐츠분야 R&D 참여 유도

* 창조비타민 5대 전략분야 : ① 재난안전/SOC, ② 전략산업화, ③ 보건의료, ④ 문화콘텐츠, ⑤ 지역산업활성화

- 동반성장 지수평가 대상 분야와 연계하여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 수요처의 사업 참여 추진
 - － 지수평가 수요처 대상 사업설명회, 워크숍 등 주요 행사 시 R&D 우수사례 고지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9080*」 토대 마련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성공률 90%, 구매성공률 80% 설정

- 투자기업의 평가참여, 기술코칭, 시장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여 상용화 성공률 확대

－ 과제관리시스템(DB) 완비로 과제수행 중소기업의 구매확대 촉진(3월)

- 업종 대표기업, 중견기업의 참여비율을 높여 2·3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회 확대

* 협약금액(누계, 억원) : ('12) 4,380 → ('13) 5,508 → ('14) 6,000 ⇨ ('17) 10,000

* 투자기업(누계, 개사) : ('12) 22 → ('13) 38 → ('14) 50 ⇨ ('17) 80

－ 투자기업을 전통 제조업에서 유통, 서비스, 통신 등 지식서비스 분야로 확장

□ 틈새영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지원

- (직접사업화)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과 기업의 투자를 기반으로 설립한 신규법인(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비즈니스 창출

－ 기술출자, 자금출연, 기술개발지원 등의 체계로 신규법인 10개 설립하여 기술사업화 실현

- (적합업종)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비를 선별 지원하여 경쟁력 제고

－ 기술위원회(TF)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하여 연간 12건(3년 36건) 지원

- (U턴기업) 기업의 국내 적응력 강화, 노동집약적 사업의 고부가가치화, 생산품의 해외수출 촉진

－ 재단·전문기관 중심 지원체계 마련하여 연간 11건(3년 33건) 지원

② 중소기업 현장기술의 보호

□ 기술자료 임치 2만건 및 기술보호 역량 확충

- 대기업의 기술임치제 도입 확대 및 산업부 등 정부 R&D 결과물의 임치제도 도입 반영 등 임치수요 확대('13년말 9,462건)

* 정부 R&D는 연간 2만3천건으로 임치가 의무화된 중기청 R&D는 4천건에 불과하며, 임치제 도입 대기업은 삼성전자, 포스코 등 17개사에 불과

< 연도별 기술임치 실적 >

구분	'08	'09	'10	'11	'12	'13
건수(누계)	26	120 (146)	307 (453)	618 (1,071)	2,706 (3,777)	5,685 (9,462)

- 급증하는 임치수요 대비를 위한 임치금고 확충

* 금고 수(개) : ('13) 12,870 → ('14) 17,870 → ('15) 25,000

- 기술임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임치를 활성화하고 기술자료 은행으로의 전문성 확보

□ 대·중소기업 기술임치 인지도 제고 및 기술보호 인식 확산

- 기술임치에 대한 낮은 인지도(45.4%)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임치 제도교육 확대(500개사)

－ 기술보호 세미나 및 기술임치 발전연구회 개최(연 2회)

* 1만건, 2만건에 맞춰 기념행사로 개최하여 대·중소기업 인식 확산

－ 경제지 등 언론과 기술관련 전문지 등에 우수사례 홍보 확대

－ 산업단지·지방청 등과 연계해 중소기업 현장에 찾아가는 홍보 실시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기술보호 전문역량 확보

－ 기술보호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유출 분쟁조정 실시

③ 뿌리가 튼튼한 산업기반 조성

□ 뿌리산업 우수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강화

- 마이스터고 중 선별하여 뿌리산업 현장에 적합한 교육 실시를 위한 첨단 실습장비 도입을 지원
 - － 4개 고교를 선정, 뿌리기술 분야를 특화해 장비 및 교육 지원
 - － 첨단장비 활용도를 50% 이상(주30시간→45시간) 제고하기 위해 실습교육을 지원하고 경진대회 개최(연1회)
- 뿌리산업 현장 기술인력 및 전문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진국 뿌리산업 현장연수 실시(연7회, 110명)
 - * 뿌리산업 분야(6개)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용접, 표면처리

□ 숙련공이 보유한 경험적 뿌리기술 전승체계 구축

- 암묵지 형태의 뿌리기술을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식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뿌리기술은행으로 활용
 - * 뿌리산업 근로자 중 40대 이상이 63%에 달해 기술의 사장화 우려
 - * 암묵지 : 학습·경험을 통해 습득하여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지만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
- － 기술제공 기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 뿌리암묵지 기술자·기술명장 등으로 ‘마이스터클럽’을 구성하고 중소기업 진단 컨설팅 및 교육강사로 활용하여 기술을 전수
- 역량을 갖춘 뿌리기업 현장에 교육장비를 설치하여 전문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독일식 ‘뿌리기술 마이스터형 CEO’ 양성
 - － 14년 6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뿌리기술 실무교육과 기업가정신 등 경영자 교육 실시
 - － 인도네시아 현지 기술인력을 시범교육하여 국내 기업에 공급

1 동반성장 투자재원 확충 및 생산혁신

□ 동반성장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투자재원 확충

- 동반성장 투자재원 협약 1조원, 출연 6,18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협력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출, 판로확대 등 지원

* 출연협약(억원) : ('13) 7,528 → ('16) 10,000

* 출연(억원) : ('13) 2,136 → ('16) 6,180

- 동반성장 지수 및 공공기관 평가대상 기업 중 미참여기업과 중견기업의 출연 유도

* 평가대상 미참여기업 : 동반성장 지수 49개사, 공공기관평가 46개사

- 우수 출연사례를 제시하고 주요 대기업 직접방문, 실무진 워크숍 개최 등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 산업혁신운동 3.0 정착 및 운영 내실화

- 산업혁신운동 3.0 참여 중소기업을 1,190개에서 2,207개로 늘리고 투입재원도 350억원으로 확대

－ 지원분야를 공정혁신에서 판로·수출·디자인 등 고부가 지식 영역으로 확대

* 산업혁신 3.0 지원(개,억원) : ('13) 1,190(303) → ('14) 2,207(350)

- 9개 단체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속하게 재원 지원

□ 2·3차 협력사 생산성혁신 지원

- 1차 협력사 중심의 생산성혁신을 2·3차 협력사로 확산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참여 유도

－ 지원 분야를 제조혁신, 기술혁신에서 디자인, 품질 등 다양화

* 재원조성 비율 : 정부-대기업(3:7), 정부-중견기업(5:5)

* 제조업 생산성 비교 : 대기업(100%), 중견기업(43%), 중소기업(33%)

② 대기업 역량을 활용한 국내외 판로지원

□ 4대 유통채널을 활용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활성화

- 4대 유통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중소기업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MD간 만남의 장 마련(연3회)
 - － 대기업·공기업이 참여하는 구매상담회와 연계하여 구매실적 제고
- * 백화점(고급브랜드), 대형마트(지방중기제품), 홈쇼핑(인기제품), 전자상거래(아이디어상품)
- 4대 유통채널이 참여하는 「유통동반성장협의회」 운영
 - * (구성) 유통채널 대표, 위원장, 중기청장 참여
 - * (기능) 중기제품 구매확대, 국내외 판로개척, 3대 애로사항(수수료인하, 결제조건, 마케팅비용 부담한 전가) 개선, 대리점 영업관행 개선 등

□ 공공기관·대기업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

대통령님 신년사('14.1.6)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동반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 또한, 해외건설·플랜트 등을 수출하는데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

- 대기업·공기업의 특성에 맞춘 중소기업 진출 프로그램 적극 개발
 - － (전력) 개도국의 발전·송전 프로젝트에 한국 중소기업 참여 추진
 - * 한전, 5대 발전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참여
 - － (플랜트) 대형 건설사, 중공업체와 협력 중소기업 연결
 - － (유통) 유통 대기업의 해외 직영점에 중소기업 납품
 - * 롯데, 신세계, CJ 등과 협조 타진
 - － (식품) 한국 식품의 중국시장 진출에 대기업 활용
 - * CJ, 롯데 등 기 진출기업과 업무 제휴
- 해외홈쇼핑 활용 중기제품 수출지원 사업 확대
 - * TV홈쇼핑 해외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추진
 - * 참여 중소기업 확대(개): ('13) 50 → ('14) 70 → ('15) 100
 - * 해외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

③ 협력활동 성과의 공정한 배분

□ 1차(중견기업) - 2·3차 협력사로 성과공유제 지속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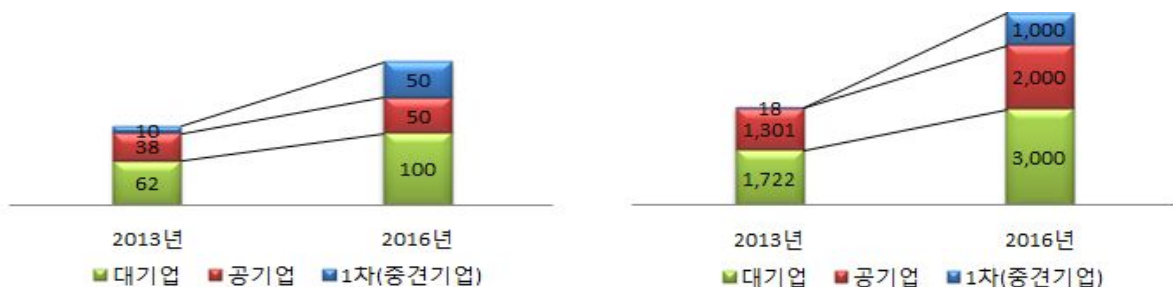
- 『성과공유 3000-3000』 프로젝트 추진하여 대기업 3,000과제, 공기업 2,000과제, 1차(중견기업) 1,000과제 달성

* 대기업(개,과제) : ('13) 62(1,722) → ('16) 100(3,000)

* 공기업(개,과제) : ('13) 38(1,301) → ('16) 50(2,000)

* 1차·중견기업(개,과제) : ('13) 10(18) → ('16) 50(1,000)

－ 미션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시 성과공유 지원조직 확대 운영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대 >

< 성과공유과제 확대 >

□ 성과공유 참여기업의 만족도 제고

- 성과공유 아카데미를 통해 성과공유 기법, 업종별 모델을 소개하고 매월 개최(연 10회)
-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 * 既 개발된 21개 업종 82개 모델 도식화, 2·3차 모델 추가 개발
- 성과공유 시행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기업이 필요에 의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관리
 - * 성과공유 완료과제 분석결과 과제당 재무성과는 대기업 2.4억(47%), 협력사 2.7억(53%)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개선효과 발생

① 현장중심의 동반성장 활동 확대

□ 현장의 목소리 청취 강화

- 4대 분야* 동반성장 참여기업별 애로수렴 간담회 개최(연 10회)
 - * 4대 분야 : 적합업종, 수탁기업, 뿌리기업, 중견기업
- － 중소기업음부즈만과 동반위 책임자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기업애로를 발굴·해결
- 동반성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를 청취하기 위하여 협력 중소기업, 골목시장, 적합업종 등을 현장방문(연 50회)
 - － 제기된 애로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종합센터와 음부즈만실을 연계하여 끝까지 해결이 되도록 노력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율적 합의 도출을 위해 동반성장 위원회 회의를 기업 현장에서 개최(연 2회 : 대기업 1, 중소기업 1)
 - * 위원회 회의 총 8회 중 2회(대기업 1, 중소기업 1) 산업현장회의 개최

□ 참여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행정 수행(연 70회)



② 동반성장 종합센터 설치

□ 동반성장으로 상시해결 통합센터 설치

- 산업현장의 동반성장 관련 애로의 발굴과 해소를 위해 「동반성장 종합센터」를 설립하여 상시 맞춤형 민원 해결 서비스 제공
- 대기업·공기업과 거래는 하고 싶으나 만날 기회가 없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접촉 창구 개설
 - * 납품희망기업의 정보를 주(週) 단위로 취합하여 해당 대기업의 동반성장부서로 전달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동반성장 종합센터 주요역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처리 : 수·위탁분쟁조정, 적합업종 위반, 전문인력유출, 기술탈취 등• 실태조사 :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MRO 이행실태조사 등• 납품알선 : 중소기업의 대기업·공기업 납품거래 알선•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기술, 기타 경영상의 애로를 발굴 |
|---|

- 센터 내 중소기업 자문봉사단 ‘베테랑클럽(가칭)’ 운영
 - － 무료 법률자문 변호사, 대기업(공기업) 퇴직자 및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센터 상담인력(파트타이머)으로 활용

□ 납품알선의 실효성을 위해 대기업과 MOU 체결

- 대기업 30개사, 4대 유통채널 12개사 대기업과 협력 MOU 체결 추진
 - － 센터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한 검토 및 구매협력 등을 협약하여 실효성을 제고
-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 직원 활용을 위해 파견 유도

③ 「동반성장 1조원 파트너」 선정

□ 2·3차 협력사와의 가교 역할 강화

- 대기업 협력사 및 중견기업 중에서 매출액 1조원을 돌파한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1조원 파트너」 선정(11월)
 - * 11월 동반성장 주간행사시 인증패 수여
 -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협력사 중에서 선정
- 「동반성장 1조원 파트너」 기업과 2·3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확산으로 동반성장 문화 선도

참고

자율적 동반성장 실천 10대과제

10대과제	세부실천과제	추진시기
① 기업 자율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	① 동반성장 민간선언을 토대로 자율적 실천 문화 확산	완료
	② 대기업·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기구 운영	장기('16)
	③ 대·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 정착	중기('15)
	④ 중소기업의 자율적 동반성장 활동 전개	중기('15)
② 실효성있는 동반성장 활동 지원	① 수탁기업협의회를 동반성장 교류의 채널로 활용	단기('14)
	② 동반성장 투자재원 조성확대	단기('14)
③ 공유가치창출 분야로 동반성장 영역 확대	① 공유가치창출 모델 개발	단기('14)
	② 공유가치창출 오픈마켓 신설 및 캠페인 전개	장기('16)
④ 중기제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① 4대유통채널을 중기제품 판로채널로 활용	단기('14)
	② 해외홈쇼핑에 중기제품 판매기회 제공	단기('14)
	③ 공공기관·대기업과 함께 중기 해외진출 지원	단기('14)
	④ 유통채널 및 프랜차이즈 대리점 영업관행 개선	단기('14)
⑤ 투명한 대금결제시스템 도입	① 2·3차협력사까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장기('16)
	② 공기업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단기('14)
⑥ 산업별 동반성장 모델 확산	① 6대분야 동반성장 모델 정착	단기('14)
	② 동반성장 1·2·3 동행 모델 개발	중기('15)
⑦ 협력적 인력양성을 위한 동반활동 전개	① 중기 인력양성을 위한 대기업 역할 분담	중기('15)
	② 동반성장 매니저 연 2,000명 양성	중기('15)
	③ 중소기업 자원봉사단 베테랑클럽 구성	단기('14)
⑧ 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정례화	① 대기업 브랜드 활용 공동채용박람회 개최	단기('14)
	② 기업자체 동반성장 채용박람회 개최	단기('14)
⑨ 동반성장 애로사항의 상시적 해결	① 동반성장 걸림돌 발굴 및 제거	중기('15)
	② 동반성장 종합센터 설치	단기('14)
⑩ 동반성장 활동 기능 정비	① 동반성장운영협의회 운영	단기('14)
	② 지역별 동반성장 협력체계 구축	단기('14)